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A Tower 604호 (04323) Tel : 02) 780-2765~6 Fax : 02) 780-2767 E-mail : ortho@koa.or.kr

정형외과학회소식

Newsletter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손원용 회장님 취임사 | 김학선 이사장님 취임사 | 동양고전산책 | CiOS 공지사항 | 학회 공지사항 | 대리수술 관련 학회 회원 징계 공지의 건 | 징계결정 공지문 | 회원 자유기고 |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 2018년도 수연 회원 명단 및 기념품 증정 행사 종료 안내 | 2019년도 전문의 시험 논문 점수 규정 안내 | 2019년도 제62차 정형외과 전문의 시험 시행 계획 공고 |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 공지사항 |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회 소식 | 교실소식 | 모집공고 | CONFERENCE | 회원동정 |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 기금 및 학회지 발전 기금 고액 기부자 명단 | 정형외과 질환별 팜플렛 발간 |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 | 출간소식

회장 손원용 · 이사장 김학선 · 총무이사 한승환

12

2018 December vol.346

17년 Block Buster!

펠루비® CR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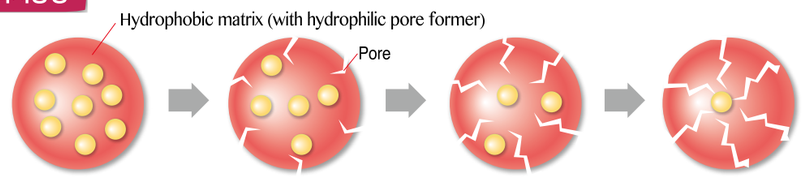
Pelubiprofen 45mg

PELUB Innovation

특허받은 Hydrophobic Matrix 구조로 설계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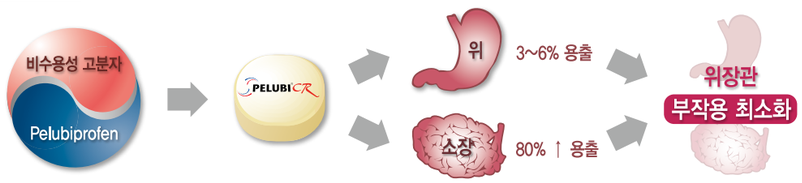
부종과 속쓰림이 개선되었습니다.

펠루비서방정



체액에 용해되어 생성된 미세기공으로 펠루비프로펜이 **서서히 방출**

서방기술 특허



서방화 기술을 통해,

펠루비프로펜이 **서서히,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방출됩니다.

대원제약 (우)04808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86 **TEL:** (02)2204-7000, (수신자부담) 080-497-8272 **FAX:** (02)3436-4878
Website: www.daewonpharm.com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MOTIONCORE

최첨단 3차원 동작균형 분석

MOTIONCORE는 건강의 척도인 '동작균형'을
의료 빅데이터로 제시합니다.

5MIN 5분 내외 측정

FREE 1일 측정인원 제한 없음

인정비급여 비급여 항목 검사 시행

JEIOS Medical

01 의료 빅데이터 시각화

- 인체 동작을 측정하여 의료 빅데이터 산출
- 빅데이터 시각툴을 활용한 정량화된 결과 제공

02 센서 기반 생체정보 인식 통합솔루션

- 신경 생체역학 알고리즘, 동작데이터 클러스터링 기술
- 통계·수학·데이터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건강&질병 예측 및 시뮬레이션

03 수치 기반의 객관적 동작균형 표준 마련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 생체정보에 대한 수치화된 자아(Quantified Self)모델 제시

MOTIONCORE
Human Motion Analysis System

5분 검사만으로 동작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조절 연결인자, 골격계와 신경계 기능 매개변수, 인체 각 부분에 대해 수치화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이어스㈜
www.motioncore.co.kr
T. 1644-9543 E. korea@jeios.com

취임사

존경하는 자문위원, 선배, 동료, 후배 회원여러분,

손 원 용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대 회장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2019년 정형외과학회 회장에 취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고,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맞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동안 무수한 난관과 난제들을 극복하고 저희 학회를 오늘날의 세계적인 학회의 반열에 오르도록 이끌어 주신 원로회원님들, 역대 회장님 및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선배, 동료, 후배 회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우리 의료계는 우리사회에서 이기적인 전문가집단으로만 치부되어 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 일변도의 의료정책과 비현실적인 의료보험 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있으며, 더구나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 위원회 등 여러 정부관련 부서에서 학술대회와 여러 학회 활동들을 점차적으로 제약, 구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 앞으로 1년간 재임기간 중에 김학선이사장님과 한승환총무이사님, 또 학회의 원로,선배,동요,후배 회원 여러분들과 매사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심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학회의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더욱 학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향후 일년간 다음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학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회발전 방안으로 추계학술대회가 국제학회로 개최하는 것을 2019년에도 더욱 까다로와지는 규정에서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공직 및 일반개원회원들의 학술대회참여를 증진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우리 정형외과학회 회원들의 가장 당면한 문제인 보험수가 특히 비현실적인 보험수가를 더욱 현실화되도록 학회차원에서 원가분석 용역사업, 정형외과 상대가치 재평가 등의 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케어 대한 학회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새로 개정된 전공의 특별법에 의한 정형외과 전공의 교육의 문제점를 파악하고 보안책 마련하도록 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춘추계 학회에 전공의 교육세션을 따로 마련하여 의료법, 장애판정의 기초, 인성교육, 초음파, 기타 개원가에서 자주 시행하는 대체의학 등등, 전공의 들이 향후 전문의로써 진료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식 및 그외 필요한 항목들을 교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학회차원에서 학회회원들의 산학 연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봄가을 학회에 산학합동 심포지움을 구성하여, 많은 정형외과 회원들이 산학협업에 참여하도록 학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립되어 있지 않은 국내 사지 및 척추분야의 신체장애판정 기준을 학회에서 새로이 정리하여, 새로운 정형외과학회의 장애판정기준이 널리 사용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대한정형외과학회가 2019 AAOS guest nation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9.AAOS guest nation 행사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1년 동안 존경하는 자문위원, 선배, 동료, 후배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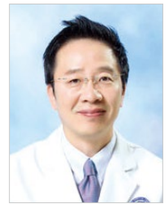
끝으로, 지난 일년간 학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한정수 회장님, 최종혁 이사장님, 천용민총무이사님에게 깊히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 드리며,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발전을 위하고, 모든 회원들이 함께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대 회장 **손 원 용**

취임사

존경하는 자문위원님, 선배, 동료, 후배 회원여러분,



김 학 선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대 이사장

존경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이 학회를 세우고 기틀을 닦으신 자문위원님들과 그 기반 위에서 이 학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온 선배와 동료 회원님들 그리고 앞으로 이 학회를 더욱 빛나게 할 후배 회원님들 앞에서 이 자랑스러운 학회의 이사장을 맞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학회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각 회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노력과 헌신 덕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학회 특유의 여러 제도와 정책이 그 빛을 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학회가 가진 지혜와 깊은 전통과 좋은 제도를 잘 닦고 다듬어서, 학회가 회원 여러분들이 더욱 더 발전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또 회원 각자의 성취가 학회의 발전으로 순환해 나가도록 저의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 앞으로 1년간 재임기간 중에 손원용 회장님과 한승환 총무 이사님, 또 학회의 원로, 선배, 동료, 후배 회원 여러분들과 매사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심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학회의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더욱 학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향후 일년간 다음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학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정형외과학회 회원들의 가장 당면한 비급여를 없애며, 특히 근골격계 MRI 급여화하는 정부 정책에 대비하여, 학회차원에서 원가분석 용역사업등을 통하여, 회원님들께 불이익이 가지 않고, 정형외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저희 정형외과의 얼굴인 CiOS 영문학술지가 아직 SCI-E에 등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숙원 사업을 저희 임기 중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 등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데 학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1년 동안 존경하는 자문위원, 선배, 동료, 후배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임 한정수회장님과 최종혁 이사장님, 천용민 총무 이사님의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치하드리며, 과분한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믿음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발전을 함께 바라고 믿으며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대 이사장 **김 학 선**

동양고전산책(東洋古典散策)

정옥자(전 국사편찬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번 호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국사학계의 원로이시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정옥자 교수님이 우리 회원들을 위해 보내 주신 귀한 글입니다. 史記는 대학시절 감동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읽은 저에게도 가장 귀한 책입니다. 사기는 사마천이 한무제로부터 억울하게 거세(去勢, 宮刑)를 당한 후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天)은 존재 하는지, 존재 한다면 항상 옳은지(是), 틀린지(非)를 밝히려 (伯夷列傳) 피눈물을 흘리며 쓴 최고의 명저입니다. 정 교수님의 사기 소개를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춘기-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동양의 고전 가운데 사마천의 〈사기〉가 갖는 확고한 위상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기〉가운데서도 [열전]은 책의 핵심이라 하겠다. 문(文) · 사(史) · 철(哲)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의 인문학적 전통 속에서 〈사기〉는 역사서로 분류되지만, 아름다운 문장력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실(史實)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 · 사 · 철을 아우르는 명저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사마천이 처음부터 자신이 저술한 책을 〈사기〉라고 한 것이 아니다. 원래의 책이름은 〈태사공서(太史公書)〉였다. 사마천은 이 책에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라는 서문을 써서 '본문에 빠진 것을 보충하고 집안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6경에 관한 갖가지 학설들을 정리하여 제자백가의 학설을 자리매김 해놓았다.'는 것이다. '정본은 명산에 소장해 놓고 부본을 수도에 두어 후세의 성인군자들의 비판을 기다리겠다.'고도 하였다.

하 · 은 · 주 삼대에 대해서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수집했으므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미루어 추측하여 쓸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진 · 한에 대해서는 사실을 기록했으며 삼황오제부터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본기(本紀) 12권, 표(表) 10권, 서(書) 8권, 세가(世家)30권, 열전(列傳) 70권 등 총 130권 526,500자에 달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시대는 요임금부터 한 무제가 흰 기린을 잡았을 때까지로 하였다고 한다. 황제의 본기 12권, 제후(왕)들의 세가 30권, 열전 70권을 합하면 130권 중 112권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본기 · 세가 · 열전)를 중심으로 하여 연표라 할 수 있는 표와 분류사라 할 수 있는 서를 보충하여 넣었으니 〈사기〉야말로 역사를 입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하여 사마천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본기의 기(紀)와 열전의 전(傳)자를 따서 '기전체(紀傳體)'라는 역사서술 방법을 창안 · 서술하여 그 후 기전체는 역사서술 방법의 모범이 되었으니 중국의 25사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사를 서술하는 역사서술의 주류적 방법이 되었다.

앞 부분에는 자신의 족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라이프 스토리를 써 놓고 있다. 자신은 하양 북쪽 교외인 용문에서 태어나 용문산 남쪽 기슭에서 밭갈이와 목축에 종사하였다고 하였다. 열 살이 지나자 옛 문서를 모두 외웠고 20세에는 남쪽 지방을 답사하고 돌아 다녔다. 장강과 회수를 거쳐 회계산에 오르고 요임금을 장사지냈다는 구의산을 찾았고 원수와 상수에서 배를 탔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문수와 사수를 건너 제나라와 노나라에 가 학업을 닦고 공자의 발자취를 살폈다. 추와 역에서는 향사(享祀)의 예를 배우고 파 · 설 · 팽성에서 고생스러운 여행을 하고 양나라와 초나라를 거쳐 귀국하였다고 적었다.

대대로 역사가의 집안으로 태사령(太史令)이던 아버지의 유촉으로 역사가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일찍부터 다짐했고 특히 〈춘추〉에 담겨있는 춘추대의에 주목하였다고 했다. 춘추대의를 모르면 임금은 반역을 당하고 신하는 죽임을 당하며 아비는 무도를 범하고 아들은 불효를 저지르게 되니 이야말로 배덕(背德: 덕을 배반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사마천이 필생의 야심작의 집필에 들어 간지 7년 뒤 그는 이릉의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릉장군은 소수 병력으로 흉노군과 싸워 전공을 세웠지만 결국 흉노에 잡혔다. 이릉을 변호한 사마천은 한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남성을 거세하는 형벌인 궁형을 당하고 말았다. 남자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한 사마천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것은 자신이 〈춘추〉에 버금가는 역사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불휴의 명작을 남긴 위인들을 생각하였다. 유리에 유폐되어 〈주역〉을 발전시킨 서백(주문왕),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어려움을 겪은 뒤 〈춘추〉를 쓴 공자, 고국에서 추방당하고 〈이소〉를 남긴 굴원, 장님이 되고도 〈국어〉를 남긴 좌구명 등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추슬렀다. 그 고난의 세월을 가전의 역사서술 비법과 개인적인 고통을 승화시킨 에너지로 〈사기〉라는 위대한 역사서를 저작함으로서 이겨냈던 것이다.

내가 〈사기〉 [열전]을 처음 대한 것은 20대 초 대학 시절이었지만, 번역본의 한계 때문인지 별 감동을 받지 못했다. 정작 그 책의 진가를 알아본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나서였다. 1970년대 초 나는 30대 가정주부로 파고다 공원 옆에 있던 태동고전연구소에 한문을 배우러 다녔다. 거기서 교재로 읽게 된 것이 〈사기〉 [열전]이었다. 그 때 비로소 번역본에서는 맛볼 수 없는, 원전만이 갖고 있는 문장력의 아름다움과 문학적 향기에 푹 빠져버렸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개 네 자로 떨어지고 어려운 글자도 별로 없이 운문과 산문이 결합된 문장이 유려하게 줄줄 읽혔다.

거기에는 지금이라도 우리 앞에 나타날 듯싶은 온갖 인물들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자객의 길을 떠나며 부르는 의리의 사나이 형가의 마지막 노래에 묻어나는 비장미에 눈시울을 적시고, 자신이 만든 법의 그물에 걸려 끝내 죽고 마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삶을 산 상앙의 비참한 최후가 보여주는 인간사의 아이러니에 탄식을 금치 못했다. 사람 알아보고 인재를 쓸 줄 아는 능력을 가진 맹상군 같은 지도자들의 지혜에 박수를 보내고, 원대한 포부로 한 시대를 주름잡으며 대업을 이룬 유방(한고조)같은 영웅들의 기개에 가슴이 뿌듯하였다.

무엇보다 역사상의 난세인 춘추 전국시대에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자의 유가를 비롯하여 도가 법가 묵가 병가 등 제자백가들이 나타나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활약상은 눈부시게 다가왔다. 이들의 사상은 인류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지혜를 모조리 짜내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하다. 당대인들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였는지 짐작된다. 오늘날 온갖 사상과 철학적 명제들의 원류는 모두 제자백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의 깡패와는 다르지만 홍길동에 견줄 수 있는 협객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회의 후미진 구석에서 억울한 민초들의 삶을 보듬고 있었다.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 먹으며 선비의 지조를 지키다 굶어죽었다. 현실에서는 불행한 것 같지만 명예를 선택한 그들의 이름은 청사에 길이 빛났다. 도척은 현실적으로는 도둑질과 악행으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살았다. 하지만 '도척 같은 놈'이라는 말은 '나쁜 놈'의 대명사로 두고두고 치욕이 따랐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고 인생은 결국 명예를 택하느냐, 이익을 택하느냐 하는 선택과 신념의 문제이니 관속에 들어간 뒤 역사의 평가가 좌우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개인들의 삶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묘사도 탁월하여 웬만한 소설보다 더 곡진하게 인정세태를 그려내고 삶의 갈피갈피를 쓸어내리듯 사실적이어서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다. 문학작품 속의 인물은 허구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여 "어차피 이건 소설인데 뭐."하고 넘어가게 마련이지만 〈사기〉 [열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지금으로부터 이천년도 전에 이 세상을 살아낸 인물들이라는 점, 그것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였다.

여고시절 꿈꿨던 역사, 재미있고도 가슴이 떨리는 역사가 바로 거기 있었다. 그 꿈은 사실 대학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의 대학시절인 1960년대 전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의 분위기는 실증을 최고 가치로 여기던 학풍이어서 역사를 재미없는 학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풍은 문리대 사학과뿐 만 아니라 그 시대 역사학계 전반적인 풍토였던 것이다. 대학 때의 그 실망감이 〈사기〉 [열전]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보상되는 느낌이었다. 그 충만감은 오랜 공백 끝에 다시 맛보게 된 지적 허기증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사마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인간 세계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라는 명제에 충실하고 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아첨꾼들은 득세하여 영화를 누리는 현실세계의 모순을 역사의 거울로 들여다보고 그 인과성을 밝혀냈던 것이다. 역사에서 인과응보(因果應報)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법칙성을 찾아내고 싶었고 결국 찾아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기〉는 사마천의 발분의 서(書)로써 역사서로 뿐만 아니라 문 · 사 · 철을 통합한 인문학의 전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 〈사기〉를 읽으면 세상이 보이고 사람을 알게 된다.(2018년 11월 18일)

CiOS 공지사항

존경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님들께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정형외과학회는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회원님들의 유명 국제학술지들의 게재 논문 편수는 20,160여편으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순으로 전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정형외과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학회이며, 인용순위 역시 28,800여회로 6위인 세계적인 학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학회의 위상에 맞게 국제적인 영문학회지를 만들기 위하여,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CiOS)를 2009년 창간하여, 그동안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대한의학회, SCOPUS, PubMed, Medline의 등재 학술잡지로 발전하였고, 2017년에는 SCI(E) 등재 후보에 선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E-SCI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에 등재되었습니다. 일본(Journal of Orthopaedic Science), 터키, 인도, 중국 등의 학회지들은 이미 SCI(E)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의 영문학회지는 그동안의 시도에도 아직 SCI(E)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1-2년 내에 SCI(E) 등재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많은 새로운 국제학술지가 발간되고 있어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SCI(E)에 등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학회 영문학회지인 CiOS의 SCI(E) 등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은 0.99(ESCI)인 인용 지수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명 국제학술지에 우리 정형외과 회원님들의 게재 순위가 전세계의 5위인 것을 감안할 때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 CiOS 논문들을 인용한 유명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편수는 155편이며, 이중 순수하게 우리 정형외과학회 회원이 인용한 논문 편수는 8편뿐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그동안의 역량을 고려할 때에 회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SCIE 등재를 위한 목표 인용지수 2.0은 손쉽게 넘어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학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님들에게 CiOS 게재된 논문의 인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가지 방책들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효과 없이 우리 학회 공식 영문학회지가 사장될 위기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회원님들께서 학회 공식 영문학회지 CiOS가 SCI(E)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학회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영문학회지 게재논문들의 인용과 영문학회지에 우수한 논문 투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회에서는 2019년 1월부터 각 수련 병원 별로 2017-2018년 CiOS 논문을 2019년 발행되는 SCI 논문에서의 인용 횟수 통계를 내어 매달 정형외과학회 소식지에 보고 드리고, 우수한 수련 병원들에게는 적정한 혜택들이 돌아가도록 학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영문학회지편집위원장 **김 한 수**
대한정형외과학회 수련교육위원장 **김 희 중**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이사장 **최 충 혁**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회장 **이 춘 기**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김 학 선**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손 원 용**

Cited by CiOS Articles

Stem cell-based in utero therapies for spina bifida: implications for neural regeneration
Long C, Lankford L, Wang A.
Neural Regen Res. 2019;14(2):260. https://doi.org/10.4103/1673-5374.244786

학회 공지사항

1.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 중요 안내사항 등을 문자, 이메일 및 수령을 원하시는 주소로 발송하고 있으나 누락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www.koa.or.kr)에서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를 수정 요청 드리오니 로그인 하시어 개인정보수정에서 회원님의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바랍니다.

* **중요 업데이트 회원 정보**
  • 현재 소속병원 • 우편물 수신처 • 주소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 **회원정보 수정은 홈페이지(www.koa.or.kr) 로그인 후 상단의 "Mypage"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한정형외과학회 분과학회인 대한골관절종양학회가 대한의학회의 학회(전문과목)명칭 개정 인준을 받아 7월 10일 부로 대한근골격종양학회(Korean Musculoskeletal Tumor Society)로 개정됐습니다.

3. 매월 소식지에 안내되는 회원 동정란은 회원들의 경조사는 물론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식 공지를 원하시는 경우 학회 이메일 ortho@ko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학회 홈페이지 학회 사진전 메뉴 오픈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역사를 사진으로 보는 사진전 페이지(http://photo.koa.or.kr/)가 학회 홈페이지에 오픈 되었습니다.
학회에서 보관중인 역사적인 자료와 회원들이 기증한 사료들을 사진으로 게시하여 관련 설명들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페이지가 구성돼 있으니 많은 회원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대리수술 관련 학회 회원 징계 공지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회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대 집행부에서는 부산에서 발생한 대리 수술 사건으로 국민과 회원 모두에게 대단히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 자부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회원 여러분께 이러한 대리 수술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제명 등 학회 차원에서 최고수준의 제재를 의결할 것이며 회원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합니다.

1. 현재 대리 수술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기구 영업사원) 의료법 제27조 제3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위반, 의료법 제66조 및 동 시행령 제32조에 금지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지합니다.

2.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의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원인이 되거나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예외적으로 장비 사용법 설명 등을 위한 출입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출입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남기는 것을 권고하며, 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침은 향후 학회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수술 관련 판례 –

① 병원장이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마취 및 수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2년 동안 1,150여회 이상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시행한 점과 사기, 뇌물공여 등 추가 죄책이 인정되어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 부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 9. 선고 2013고합140 등 판결)

②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의사면허 없이 수술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직원이 직접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선진 시력교정술인 라섹 수술을 위한 장비 활용법 및 소프트웨어 운영 등 기술지원업무를 담당한 것은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고정3108 판결 참조).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대 집행부 이 사 장 **김 학 선**
회 장 **손 원 용**

징계결정 공지문

소 속 : OO정형외과(부산시 영도구 소재)
회원등급 : 정회원
이 름 : 이OO

제 목 : 회원 제명 징계 처분의 건

상기 회원에 대하여 본 학회의 징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결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 징계 내용
대한정형외과학회 정관 제2장 제7조에 의거 「제명」 처분키로 하며 시행일은 2018.11.16로 한다.

◆ 징계 사유
– 이OO 회원의 대리수술(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 의뢰)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킴

–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의료평가윤리위원회(2018.11.05.)와 이사회(2018.11.15.) 심의를 거쳐 제명 처분 징계를 결정 함.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자유기고

The Power Within You
(우리 안에 잠든 힘을 깨워라)

김 영 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인공관절센터

동방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하여 수많은 풍난과 고초를 겪어 오면서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5천여 년 역사를 끈질기게 이어와 절반으로 잘린 허리의 아픔을 안고 세계 정상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지만 큰 나라로 발전해온 내 조국 대한민국이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의 근간은 겉으로 보이는 Hardware는 물론 우수한 인재의 육성인 software의 발전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우리의료계도 global 경쟁체재의 승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발전하여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global 경쟁을 이끌어갈 인재의 양성이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 처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조금씩 싹이 트고 그 싹들이 생기 있게 자라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나 global 경쟁체재에서 선두주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잠든 힘 (The Power Within You)"을 깨우기 위해 all-in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의건 타의건 화려한 외형의 덫에서 벗어나 자기 안에 잠든 힘을 일깨워 불멸의 업적을 남긴 우리들의 선인 중 한 분이 이순신이다. 전남 해남 울돌목에서 승리한 명량대첩이다. 울돌목은 전남해남의 화원반도와 진도의 녹진리 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해협을 흐르는 물이 암초에 부딪쳐 튕겨 나오는 소리가 매우 커 '소리 내어 우는 바다 길목'이라는 뜻이다. 하루에 물길이 4 번 바뀐다. 그 위에는 쌍둥이 진도대교가 위용을 자랑하고 바닷물과 어울린 야경은 볼만하다. 울돌목에서 잡히는 봄철의 숭어는 그 맛이 일품이다.

초등학교 시절 우수영 소풍 길에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처음 가본 울돌목의 물소리는 무서웠다. 얼마 전 다시 본 울돌목의 물살은 여전히 무섭다. 그런데 명량대첩이 생각나면서 무서움은 차라리 감동으로 다가온다.

1597년 정유년 이순신은 울돌목의 물살 위에 13척의 배로 서진(西進)하는 왜선을 막아 섰다. 음력 9월 16일. 정유재란의 끝을 재촉하던 날, 그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必死卽生 必生卽死)'로 조선 수군을 독려했다. 생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 없는 한 인간의 각오라고 하기에는 매우 극단적이다. '일당백' '일기당천'이 군대의 사기를 올리고 국기를 다잡는 말이지만 극단임에 분명하다. 이순신의 칼에는 정치가 없었다. 정치라기 보다는 권력다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의 칼은 칼로서 순결하고, 이 한없는 단순성이야 말로 그의 칼의 무서움이고 그의 생의 비극이었다. 그리고 이 삼엄한 단순성에는 굴욕을 수용하지 못하는 인간의 자멸적 정서가 깔려있다."고 김훈은 적고 있다. 어린애처럼 칭얼대는 선조의 타령을 뒤로하고 피아(彼我)전력 10대 1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단순명료하고 담대한 칼이었다. 반면에 정치가 배어있지 않았던 그의 칼이 개인적으로는 비극적 종말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난중일기는 절제된 언어로 시종여일 (始終如一)하다.

어디 이순신뿐이랴. 정치에 얽혀 아수라장에 빠지거나 정치에서 벗어남으로써 빛나는 업적을 남긴 역사적 사례는 많다. 정치적 이유로 자리를 차지했던 원균은 조선 수군을 괴멸시켰다. 세종 때의 집현전 학자들은 단종과 수양대군 사이의 권력다툼에 연루되면서 죽음으로 내몰렸다.

조정의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송강 정철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사)미인곡과 함께 4대 가사 중의 하나인 성산별곡을 유배지인 전남 담양에서 지었다.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식영정(息影亭)에서 바라본 별뫼(星山)를 그린 것이다.

정조가 승하하자 전남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당한 다산 정약용은 정치에서 멀어진 덕분에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의 탁월한 저서를 남길 수 있었다. 맑은 날 다산 초당에서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흑산도에 귀양간, 귀양 길에서 헤어진 후 다시는 보지 못할 둘째 형 정약진이 그리워서 사무친 마음도 책에 녹였다. 고산 윤선도는 정치에서 멀어진 덕에 보길도에 머물면서 어부사시가, 오우가 등의 유명한 시가를 남겼다. 정치에서 벗어난 단순성의 결과들이다.

독일 문호 괴테는 "공적 뿐 아니라 성실함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발걸음은 무거워도 이를 악물고 올라가야 한다! 자 나아가라 중단하면 안 된다, 희망을 가슴에 안고 힘내라!"고 외쳤다. 이순신 장군, 집현전 학자, 송강 정철, 다산 정약용은 피하고 달랠 수 없는 처절한 외로움과 그리움의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슴에 안고 성실한 인고의 노력 끝에 역사에 길이 남을 불후의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이들 현인들은 자기 앞에 다가온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자기들에게 다가온 축복으로 여겨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 자기 안에 잠든 힘을 일깨워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일에만 all-in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로 하여금 불멸의 업적을 남긴 원동력이 된 것 같다.

근래에 우리나라 의사들의 SCI Journal에 발표한 논문 숫자를 보면 세계 어느 선진국 못지 않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이로운 발전은 자기의 취미와 사생활, 심지어는 가정사를 뒤로하고 자기의 크고 작은 귀중한 분야에 all-in하는 젊은 석학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화려한 외형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기 분야에서 all-in하여 우리나라 의학 수준을 세계화로 이끌고 있는 이름없는 별들에게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온 경의를 표한다.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여건과 환경이지만 각 의료 기관과 학회의 지도자들이 새롭게 변화하고 정신적으로 열려있는 성원으로 이름없는 별들이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힘을 일깨워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석학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학회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보행 장애 증상에 대하여 아킬레스건 단축 진단 받고 3차례 수술 하였으나 타병원에서 척추 경막외 지주막 낭종 진단

강기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사건개요]

보행 장애(내족지 보행과 첨족 보행)를 주소로 내원한 8세 환자에게 양측 아킬레스건 단축 진단하 아킬레스건 연장술 시행하고, 약 3년 후 보행 이상의 원인을 뇌성마비 관련 증상으로 진단하고 다시 아킬레스건 연장술, 양측 대퇴부 대퇴직근 이식술 등 시행하였으나 보행 장애 지속되어 내원한 타병원에서 척추 경막외 지주망 낭종 진단받은 사건으로 신청인은 척수 질환을 아킬레스 단축과 뇌성마비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환자(8/남)는 2013. 9. 12. 보행 장애를 주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족부 X-ray 검사 후 양측 아킬레스건 단축 추정 진단 받고 12. 23. 양측 아킬레스건 연장술 받음.

이후 재활치료 및 보조기 적용하고 외래 추시하던 중, 2016. 10. 20. 슬와긴장(Hamstring tightness), 요족(cavus) 소견 보이며 11. 8. 타병원에서 시행한 보행분석검사 결과 뇌성마비(분류: 경직성 양하지마비) 의심 소견, 양측 내반족, 대퇴직근 긴장, 아킬레스 긴장 소견 보여 다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12. 14. 족저근막 절개술, 박근의 전방 이전술, 아킬레스건 연장술 받고, 12. 21. 양측 대퇴부 대퇴직근 이식술 및 양측 족부 후경골 인대 이식술, 양측 족부 제 1족지 중족골 절골술 받음.

이후 타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 받고 피신청인병원에서 외래 추시 관찰 중 2017. 5. 30. 근위약감 및 경직 소견이 진행형으로 보여 신경병증 혹은 근병증 의심 소견 보임.

2017. 7. 9. 보행 장애, 하지 위약감 주소로 타병원에 입원하여 7. 10. 시행한 경-흉-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지주막 낭종(Spinal extradural arachnoid cyst) 소견 보이며 7. 11. 근전도 검사상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소견 보여 7. 14. 제 10 흉추 – 제 1 요추간 척추궁 성형술 및 절제술(laminoplastic laminectomy) 지주막 낭종 제거술 후 재활치료 받는 중으로 2018. 1. 15. 보행기능 호전되는 상태 확인됨.

[분쟁 쟁점]

환자측 : 까치발 증상에 대해 아킬레스건 단축 진단하 연장술 받고, 하지 위약감, 보행 장애 지속되어 뇌성마비 소견으로 추가 수술 받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과 이에 대한 검사를 요구했지만 의사는 괜찮다고만 함. 증상 지속되어 내원한 타병원에서 척추 경막외 지주막 낭종으로 낭종 제거술 후 보행 장애 호전된 것으로 보아 척수 질환을 아킬레스 단축과 뇌성마비로 오진하여 증상이 악화되고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함.

병원측 : 보행 이상에 대해 충분한 문진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허리 통증에 대해서도 특이 이상 소견 없어 임상적 진단에서 배제하였으며 아킬레스 연장술 후 2년간 보행 개선되었다가 다시 첨족 보행 발생하여, 자세한 검사 후 뇌성마비 관련 증상으로 판단하여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다고 주장함.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증상에 대한 초기 검사, 진단 및 치료 방법 선택의 적절성

소아의 족부 변형은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 및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검사가 필요함. 특히 중추 신경계(뇌, 척수)의 병변에 의해 족부 변형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검사가 필요함.

이 건의 경우, 양측에 나타난 변형이므로 그 원인이 좀 더 중심부인 척추나 뇌 등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했었어야 한다고 사료됨. 아킬레스건 단축을 진단하고 이에 수술적 치료를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그 원인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기에 초기 검사 및 진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2) 수술(양측 아킬레스건 연장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수술 후 약 2년 동안 증상 호전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양측 아킬레스건 연장술 및 이 수술에 따른 경과관찰은 적절하였음. 변형은 수동적인 힘에 의해 교정이 되는 유연성 변형과 그렇지 않은 강직성 변형이 있는데, 의무기록상 신청인의 족부 변형은 거의 고착화 되어 있는 상태로 사료됨. 단지 기록상의 이학적 검사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치료 기간도 길어 강직성 변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됨. 따라서 조기에 척추 질환을 발견하여 수술적 치료를 했더라도, 족부 변형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3) 2차·3차 수술 및 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아킬레스건의 재연장술, 박근 박리술, 대퇴직근이전술, 제1중족관절 수술 등은 족부 변형의 교정에 있어서 적절한 치료로 판단되며 경과관찰 상에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음. 다만, 초기에 척추 경막외 지주막 낭종이 진단되었다고 가정하면 최소 한 번의 수술은 반드시 필요했으나, 2차, 3차 수술이 필요했었는지는 경과에 따라 다르므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4) 설명의 적절성

족부 변형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였으나, 척추 병변에 대한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추가 처치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족부 변형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됨.

나. 인과관계

1) 2013. 12. 23. 양측 아킬레스건 연장술을 받게 된 원인

족부 병변의 원인은 정확하지 않으나 척추 병변(척추 경막외 지주막 낭종)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나 뇌병변(뇌성마비 의증)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족부 상태는 까치발 보행 및 족부 변형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었음.

2) 1차 수술 후 다시 발생한 보행 장애의 원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뇌병변 또는 척추 병변이 계속 남아 있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증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고 족부 변형에 대한 수술만 시행되어 보행 장애가 지속해서 재발된 것으로 사료됨.

3) 척추 경막외 지주막 낭종의 발생 시점 및 원인

2017년 7월경 타병원의 의무기록을 참조해 보면, 4년 전부터 보행 장애가 있었으며 피신청인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보행 장애의 호전과 악화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임. 신체검사 상 소견도 척수 압박을 시사하는 내용이고, 2017. 7. 11. 신경-근전도 검사에서도 척수 압박을 의미하는 소견임.

척추부를 통틀어 흉추 제 10-12번간 척주관 내 신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여유 공간이 적은 부분인데, 신청인의 경우 척추부 MRI 상 흉추 제 10번-요추 제 2번 부위의 척추 경막외 지주막 낭종 소견이 보여 신경 압박 증상이 더 발생했었을 것으로 추정됨. 낭종의 발생 시기는 정확히 가늠하기는 곤란하지만, 낭종의 크기가 증가하여 척수압박에 따른 증상의 발생 혹은 진행은 보행 장애 및 하지 위약감 등 신경학적 증상이 생긴 즈음으로 추정할 수 있음. 낭종 발생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음.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정 결정함.
의료중재원의 조정부는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에게는 진단상의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될 수 있을 뿐으로 양측 아킬레스건 연장술 등 3차례의 수술과 수술 후 경과관찰 등에 있어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자료로서만 평가하여 액수를 정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병원 의료진 및 임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정 결정함.

[예방 Tip]

1. 상지나 하지의 변형이 있을 때는 수술 전에 그 원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변형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기록에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2. 설명의 의무는 악결과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위자료로 보상하게 된다.

2018년도 수연회원 명단 및 기념품 증정 행사 종료 안내

매년 회갑을 맞으신 수연회원께 그 동안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증정해 드렸던 기념품과 관련하여 제61대 집행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금년부터 수연회원께 드리는 기념품 증정 행사를 종료하고 수연 맞은 해에 한해서 춘, 추계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11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일부 수연회원의 경우 증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오니 대상 회원께서는 넓은 혜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내 드린 2018년도 수연회원께는 제62차 국제학술대회와 제63차 춘계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해 드릴 예정이오니 무료등록을 원하시는 회원은 학회 사무국(02-780-276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회원 명단〉

강준순	고동우	고무경	고재운	권진우	권태우	김남석	김두정	김석현	김영권	김영선
김윤수	김재훈	김종호	김찬우	김태훈	김형구	김형주	김환수	남필훈	류중곤	박근순
박기영	박승준	박원종	박일성	박정호	배동환	백원진	백창현	소순호	송승헌	신동민
신현대	심규형	심원보	심종섭	안동진	안면중	안병관	여봉구	오승환	오종건	오흥룡
위상문	유경재	유병구	유수철	윤열호	이강욱	이광원	이광철	이규열	이기범	이명철
이상선	이석범	이승원	이승호	이영수	이원석	이윤태	이재학	이지호	이필구	이한용
인정환	장세영	장용기	장재민	전창훈	정광수	정기동	정남진	정대은	정석영	정창영
정태성	조기종	조성일	조신강	조유행	조윤제	차원진	최규웅	최수중	최용기	한규정
한동우	한상규	한영길	허재영	홍순학						

2019년도 전문의 시험 논문 점수 규정 안내

1.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전문의 시험 응시 서류 접수 마감일시 이전까지의 논문 점수가 최소 3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1편 이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나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또는 SCI(E) 잡지에 출간 또는 채택(accepted) 되어야 한다.

   단,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응시자가 속한 병원 혹은 속한 의료원 산하병원에서 만들어진 논문이어야 한다.
   여러 병원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적절한 심사를 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같은 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공동 연구는 제외)
   ※ Scopus 등재지는 SCI(E)와 등재지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그리고 SCI(E)에 등재된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는 3점이며 출간되거나 채택되면 (accepted) 인정한다.
   ※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가 아닌 SCI(E) 등재 학술지는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가 응시 전공의와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소속이고, 정형외과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에 한에 3점 인정, 그 외 논문은 사안에 따라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함.

2) 분과학회지 및 관련학회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 인정한다.
   ①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2점: Hip and pelvis (구, 고관절 학회지),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족부족관절, 견주관절, 류마티스, JBM(구, 골대사학회지), Osteoporosis and sarcopenia(구, 골다공증학회지), Asian spine journal,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구, 슬관절학회지),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 (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

   ② 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는 1점: 관절경, 정형외과스포츠의학, 척추신기술학회, AOSM(대한관절경-대정스포츠의학회 통합영문학회지), Hand Surgery(Asian-Pacific Federation of Societies for Surgery of the Hand 공식잡지) 학회지이다. (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2점 인정)

3) 증례보고(Case report) 및 종설(Review article)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SCI(E)에 발표된 경우는 1점을 인정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0.5점을 인정. 그 외의 분과 및 관련학회지는 인정하지 않음.

4) 상기 점수는 필요에 따라서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회에서 분과 및 관련학회지의 질을 재평가하여 조정한다.

2. 대한정형외과학회 또는 관련학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1편 이상을 발표 하여야 한다.
3.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모든 논문에서 전공의 3인까지만 인정하고 배정된 점수를 전공의 수로 나눈 점수를 인정한다.

상기의 수정 보완된 사항은 2019년 1월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한다.

※ 전문의 시험 논문 자격 중 대한정형외과학회지, CiOS, SCI(E) 학술지는 채택(accepted) 되거나 E-pub된 경우는 발간(Printed publication) 되지 않더라도 논문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학술지는 발간된 경우만 인정한다.

※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와 통합된 골관절종양, 골연부조직이식, 정형외과초음파, 정형외과컴퓨터수술, 정형통증, 정형외과연구, 운동계 줄기세포재생의학회지는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동일한 논문 점수로 인정한다. 통합 전 발간된 학회지의 논문 점수는 아래와 같다.
[통합 전 발간된 학회지 원저 논문 점수] 골관절종양 2점, 골연부조직이식 1점, 정형외과초음파 1점, 정형통증의학회지 1점, 정형외과연구학회지 1점

※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의 경우 통합 전 수부외과학회지와 미세수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점수는 아래와 같다.
[통합 전 발간된 학회지 원저 논문 점수] 수부외과학회지 2점, 미세수술학회지 1점

2019년도 제62차 정형외과 전문의 시험 시행 계획 공고

▶ 제출서류 교부기간 및 장소

교부 일시	교부 장소
2018년 12월 17일(월) ~ 12월 21일(금) 09:30 ~ 17:30	학회 사무실 (용산구 한강대로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 A동 604호)

▶ 시험 일시 및 합격자 발표

시험 구분	시험 일시	합격자 발표일
1차 시험	2019년 1월 11일(금), 09:00	2019년 1월 15일(화), 14:00
2차 시험	2019년 1월 23일(수)~24일(목)	2019년 2월 1일(금), 14:00

※ 1차 시험 장소는 삼육대학교에서 실시합니다.
※ 합격자 발표 및 확인은 대한의학회 홈페이지(http://www.kams.or.kr/),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exam.kams.or.kr)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차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 구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영상(사진)문제 시험	2019년 1월 23일(수), 09:00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 및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
구술 시험	2019년 1월 23일(수), 13:00 ~ 18:00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PBL룸(8층)
	2019년 1월 24일(목), 09:00 ~ 18:00	

▶ 1차 필기시험 시간 공지

교 시	시험시간	문제유형	문제 수	문제당 배점
1교시 (09:00 ~ 11:00)	120분	객관식	80문제	0.8점
휴식시간 (11:00 ~ 11:30)	30분			
2교시 (11:30 ~ 12:30)	60분	객관식	40문제 (R형 8문제 포함)	0.8점 (R형 1.3점)
총 계	180분		120문제	100점

▶ 2차 시험
– 멀티미디어 시험(SBT) & 구술 시험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 공지사항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입니다.

2.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허가를 받은 심사완료된 논문은 저자변경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3.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영문으로 작성 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습니다. 영문논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4. 연구 윤리의 원칙에 저자됨은 실제 연구및 논문 작성에 기여해야 하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들 중에 실제 연구및 논문 작성에 기여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저자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저자수에 제한을 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에는 4명 이하(전공의 1인) 원저에는 6명 이하(전공의 2인까지) 종설에는 3인이하 제한된 수 이상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들 등록된 저자 이외에 기여한 사람은 Acknowledgement에 넣는다.

5. 원고 투고 시 저자고유식별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 CiOS 공지사항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심사는 정규 심사 과정이 기본이나 전문의자격시험 기준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하여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2017년도 3월부터 공지하여 편집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1년 시행한 결과 처음부터 60일간의 소요기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일정으로 신청을 하거나 '수정 후 재투고' 판정 후에 재투고 기간이 늦어져 총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해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속심사제도는 회원들의 신속한 심사를 선별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이지 기한 내 심사 완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기한 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 드립니다.

전문의자격시험 논문 기준의 사유로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매년 8월 말까지만 신청을 접수 받고 진행을 하며 수정 후 재투고가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기한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유일 경우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고 가급적 정규 심사과정을 통하여 학회지 논문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 공지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신속 심사 제도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정규심사 과정과는 별도로 신속심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속심사라 하더라도 논문의 투고에서 게재결정까지는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의 시험과 관련하여 신속심사를 통하여 게재 예정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 시험 원서접수가 10월말까지이므로 논문의 투고는 적어도 8월말 이전이어야 합니다.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에 전송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후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료 30만원을 학회에 납부하면 진행됩니다. 신속심사 시행이 심사위원의 논문 게재 허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심사료 입금안내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학회지 안내문〉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한 동일한 내용의 연구물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학회지에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절 제3항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의 위반이므로 이런 경우에 징계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하여 주신 연구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는 **저자(author)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을 무분별하게 저자로 추가하는,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나의 논문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저자수를 제한**하도록 결정하였고 2018년 0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종류	저자수
원 저	6인 이하(전공의는 2인까지)
증례 보고	4인 이하(전공의는 1인까지)
종 설	3인 이하

*저자(author)란 논문에 지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하여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투고될 원고의 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상기 인원 외에 논문에 일정부분 기여를 한 인원은 감사의 글(akknowledgement)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다기관 공동 연구(Multi-center study) 등 상기 규정된 저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논문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득 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 편집위원장 **이 순 혁**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회 소식

1. 2019 Sports Medicine Symposium in Daegu

- 일시 : **2019년 1월 13일(일) 08:50 ~ 16:30**
- 장소 : 계명대학교 외과대학 성서캠퍼스 1층 대강당
-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1월 4일(금)까지
- 평점 : 의협 4점, 인증전문의 50점, KATA 10점

2. 제27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자 : **2019년 3월 30일(금) ~ 31일(토)**
- 장소 : 서울드래곤시티 5층 백두홀 (서울 용산구)
- 사전등록 마감일 : 추후 공지
- 문의 : 대한견·주관절학회 사무국 E-mail. vienna2000@hanmail.net

3. 제33차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19년 4월 6일(토) 08:30 ~ 17:30**
- 장소 : 가천대길병원(인천) 응급센터 11층 가천홀
- 초록 접수 마감일 : 2019년 2월 1일(금)
- 문의 :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사무실 Tel. 042-280-7342 E-mail. office@kossm.or.kr

4. 2019년 대한슬관절학회 제 37차 정기학술대회

- 일자 : **2019년 5월 3일(금) ~ 4일(토)**
- 장소 : 용산드래곤시티 5층 백두홀
- 초록 접수 : 2019년 1월 31일 (목)

교실소식

1. 2019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개원의 연수강좌

- 일시 : **2019년 1월 20일(일) 08:30 ~ 16:50**
- 장소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성서캠퍼스 존슨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 평점 : 6점
- 사전등록비 : 전문의 5만원, 전공의 간호사 3만원
- 현장등록비 : 전문의 7만원, 전공의 간호사 5만원
- 문의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사무실 Tel. 053-250-7729 E-mail. os@dsmc.or.kr

2. 을지병원 제5회 개원의 연수강좌

- 일시 : **2019년 1월 27일(일) 08:50 ~ 12:55**
- 장소 :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연구동 지하1층 범석홀 (서울시 노원구 소재)
- 평점 : 3점
- 사전등록기간 : 2019년 1월 18일(금)까지
- 사전등록비 : 1만원
- 문의 :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정형외과 김란영 Tel. 02-970-8036 E-mail. chan01486@naver.com

3. 2019 29th Severance Arthroscopy Symposium : Knee (ISAKOS & AAC Approved Course)

- 일자 : **2019년 2월 10일(일)**
- 장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평점 : 6점
- 문의 : 세브란스 관절경 연구회-비서 : 남선정 E-mail. sas1992@hanmail.net
-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2월 6일(수)

4. 2019 GACHON SHOULDER MEETING 심포지움

- 일시 : **2019년 2월 16일(토) 08:00 ~ 18:00**
- 장소 : 인천 라마다송도호텔 컨벤션
- 평점 : 6점
- 문의 : 가천대길병원 정형외과 비서 : 박미정 Tel. 032-460-3384 Fax. 032-423-3384 E-mail. loofru@hanmail.net

5. 2019 AOSpine Principles Seminar 광주

- 일자 : **2019년 2월 23일(토)**
- 장소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
- 등록비 : 5만원 (AOSpine 유료회원) / 8만원 (AOSpine 비회원)
- 등록방법 : AOSpine 웹사이트에서 등록/결제 가능합니다.
- 문의 : Tel. 02-2094-3932 E-mail. aospinekorea@gmail.com

모집공고

1. 2019년도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전임의 모집

- 분야 : 1) 견관절/슬관절 2명 (담당교수 : 김재화, 최원철 교수님)
  2) 척추 1명 (담당교수 : 신동은, 안태근 교수님)
  3) 족부족관절 1명 (담당교수 : 최영락 교수님)
- 자격 : 정형외과 전문의 혹은 2019년도 전문의 취득 예정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chaos@chamc.co.kr)
- 문의 : Tel. 031-780-5289

2. 2019년도 한림대 성심병원 임상강사(fellow) 모집

- 분야 : 고관절 및 슬관절
- 자격 : 정형외과 전문의 혹은 2019년도 전문의 취득 예정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 곽대경 Tel. 010-4445-8210 E-mail. limitkdk@gmail.com

3. CM병원 전임의 추가 모집

- 분야 : 척추, 견주관절, 족부관절, 슬관절
- 자격 : 정형외과 전문의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 접수방법 : E-mail 접수 (seceratary2@cmhospital.co.kr)

4. 2019년도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임의 및 임상교수 모집

- 분야 : 슬관절, 고관절, 소아/종양, 족부, 척추, 상지
- 자격 : 정형외과 전문의 및 2019년 전문의 취득 예정자
- 문의 : 전남대학교변원 정형외과 의국 Tel. 062-220-6336 E-mail. os.office.6336@gmail.com

5. 2019년도 성균관의대 강북삼성 병원 임상강사 (유급전임의)

- 분야 : 견주관절 및 상지, 슬관절
- 자격 : 정형외과 전문의 및 2019년 전문의 취득 예정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 상지; 김유진 교수 Tel. 010-5230-0809 E-mail. eugene0809.kim@samsung.com
  슬관절; 정화재 교수 Tel. 010-5202-6194 E-mail. hwajae.jeong@samusng.com

6. 2019년도 대구 MS재건병원 수부외과 Clinical fellow, 수부 및 족부 전문의 모집

- 모집인원 : 1명(유급)
- 자격 : 정형외과 전문의 및 2019년 전문의 취득 예정자
-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의사/전문의 면허증사본 각1부
- 접수형태 : E-Mail 접수 후에 면접 (hk405@naver.com)
- 문의 : 병원장 김효권 Tel. 010-4012-6884

7. 2019년도 건국대학교병원 수부 및 상지 전임의 모집

- 지도교수 : 이승준 교수
- 자격 : 정형외과 전문의 및 2019년 전문의 취득 예정자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근무기간 : 2019. 03. 01 ~ 2020. 02. 28 (군 전역 예정자는 2019년 5월 1일~)
- 문의 : 이승준 교수 Tel. 02-2030-7616 E-mail. lsjmd@naver.com

8.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수부/종양 유급 전임의(임상강사) 모집

- 모집 부분 : 수부/종양 2명 (지도교수: 정양국, 신승한)
- 자격 : 정형외과 전문의 및 2019년 전문의 취득 예정자
- 근무기간 : 2019. 03. 01 ~ 2020. 02. 28 (군 전역 예정자는 2019년 5월 1일~)
- 문의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의국 Tel. 02-2258-2838
  임상부교수 신승한 Tel. 010-4784-7678 E-mail. shshin@catholic.ac.kr

9. 2019년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유급 전임의 모집 공고

- 모집 부분 : 척추, 고관절, 견관절 & 슬관절, 수부, 족부족관절 각 1명
- 근무기간 :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8일 (군 전역예정자는 2019년 5월 1일 ~ 2020년 2월 28일)
- 문의 :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김영환 Tel. 010-3794-4869 E-mail. remedios@schmc.ac.kr

10. 제일정형외과병원 관절센터 전임의 모집 공고

- 모집 부분 :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임의(슬관절 및 견관절 관절경, 인공관절)
- 근무기간 : 임용 시점으로부터 1년
- 문의 : Tel. 02-6123-6939 E-mail. yshan95@naver.com

CONFERENCE

1.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 일정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2018	11월 8일	국립경찰병원	2019	9월 19일	국립중앙의료원
	12월 13일	일산동국대학교병원		11월 14일	한일병원
2019	2월 14일	서울백병원		12월 12일	고대구로병원
	3월 14일	서울대학교보라매병원	2020	2월 13일	삼성서울병원
	5월 9일	건국대학교병원		3월 12일	중앙대학교병원
	6월 13일	서울의료원		5월 14일	서울성모병원
	7월 11일	순천향대학교병원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00) (1, 4, 8, 10월 없음)

• 연락처 : Tel. 02-2072-2367~2368 E-mail. yoowj@snu.ac.kr

2.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 도	날 짜	횟 수	병 원 명
2018년	11월 7일	제131차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2019년	3월 6일	제132차	광명성애병원
	5월 8일	제133차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7월 3일	제134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9월 4일	제135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11월 6일	제136차	연세사랑병원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02-2228-2180~2181 E-mail. os@yuhs.ac 담당 : 송미현

회원동정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11월 20일 이영수 회원(포항선린병원) 빙모상
2. 11월 28일 이상수 회원(한림대성심병원) 빙부상
3. 11월 29일 송준엽 회원(강남베드로병원) 모친상
4. 11월 29일 김찬우 회원(고려튼튼정형외과) 모친상

¤ 축하합니다.

민병현 회원(아주대병원)이 인공연골 개발 및 인공조직 치료제 제품을 개발하여 첨단 바이오기술 자립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녹조근정훈장 수상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대한정형외과학회 제59대 집행부에서 시작한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하여 지난 제60대 집행부 1차 이사회에서 학회 회관 건축기금으로 기금명 변경을 인준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원분들이 기부해 주신 기금은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 기금으로 사용되어질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회원은 학회 홈페이지 건축기금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학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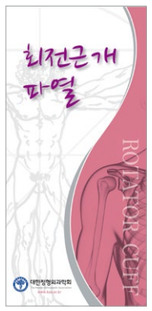
번호	성 함	소 속	모금 날짜	입 금 액	약 정 액
1	오진록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1월 26일	10,000	1,280,000
2	박근호	전주고려병원	11월 26일	1,000,000	1,000,000
3	김기택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1월 30일	100,000	7,200,000
				현재 모금액 : 216,752,000원	
				현재 약정액 : 266,6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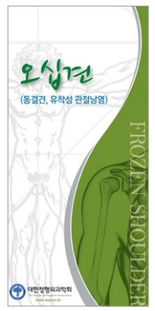
※학회지 발전 기금 모금 현황 : 20,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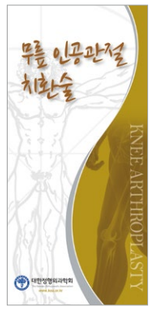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 기금 및 학회지 발전기금 고액 기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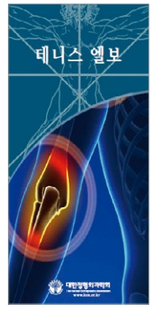
5000만원 ~ 1억	•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실 교수 일동 – 기부액 50,000,000원 •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약정액 50,000,000원
1000만원 ~ 5000만원	• 박근호 회원(전주고려병원) – 약정액 24,000,000원 • 전북의대 정형외과 교실 교수 일동 – 기부액 10,500,000원 • 고려대학교 정형외과교실 – 기부액 10,000,000원 • 고용곤 회원(연세사랑병원) – 기부액 10,000,000원 •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 기부액 10,000,000원 • 박종호 회원(부산센텀병원) – 기부액 10,000,000원 • 신규철 회원(제일정형외과병원) – 기부액 10,000,000원 • 이춘실 교수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 기부액 20,000,000원 (학회지 발전 기금)
1000만원 미만	• 김기택 회원 (강동경희대병원) – 약정액 7,2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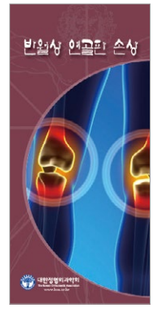
정형외과 질환별 팜플렛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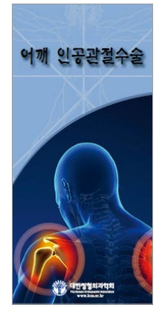












- 질환별 팜플렛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학회 팩스(02-780-2767) 또는 이메일(ortho@koa.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은 질환별 100부당 15,000원(면세)입니다
- 송금계좌: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실 경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팜플렛 신청

⊙ 신청자 성명: .....　　⊙ 병원명: .....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　　⊙ 이메일: .....

⊙ 주소: .....

질환명	신청 수	질환명	신청 수

위와 같이 신청함.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 드립니다.
회의실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학회로 송부하여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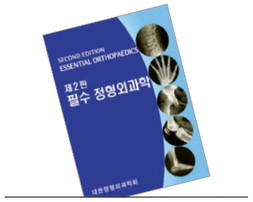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5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A Tower 606호
- 규모 : 교실형 36인, ㄷ자형 28인 수용 가능
- 대관비용 : 5만원
- 계좌안내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 무료 이용 시설 : 음향시스템(유선 마이크 2개, 무선 마이크 2개), 빔프로젝트, 냉장고, 정수기, 주차장
- 빔을 연결할 노트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사는 요청하시는 경우 학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시락 업체 연락처를 안내드립니다.
- 회의실 대관 신청서는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회 대표 이메일 ortho@koa.or.kr 또는 팩스 02-780-2767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관 불가일 안내

2018년 12월	2일(일) ~ 4일(화)	2019년 1월	21일(월)
	6일(목)		22일(화)
	10일(월)		23일(수)
	13일(목)		24일(목)
	17일(월)		25일(금)
	20일(목)		28일(월)
	21일(금)		31일(목)
	26일(수)	2019년 2월	11일(월)
	27일(목)		14일(목)
	31일(월)		18일(월)
2019년 1월	3일(목)		21일(목)
	4일(금)		25일(월)
	5일(토)		28일(목)
	7일(월)	2019년 3월	4일(월)
	20일(일)		

출간소식

1. 제2판 필수정형외과학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필수정형외과학 개정판(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2007년 제1판 출간 이후 빠르게 발전하는 정형외과학의 최신지견과 치료방법들을 수록하여 정형외과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의학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정형외과를 널리 소개하고 기본적인 정형외과학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충분한 교과서로서 의과대학 학생, 일반의사, 기타의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 격 : 6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3-01-0571-043
- 구입은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정형외과학 용어집 제3판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훌륭하신 여러 선배회원님들의 노고로 1989년 10월 정형외과학용어집 제1판이 발간. 1997년 10월 제2판이 발간된 후 10년여의 세월이 흘러 거의 사용치 않는 용어도 생겨나고 정형외과학의 발달로 수많은 새로운 용어의 탄생으로 용어집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 2판에 누락된 용어 및 새로이 탄생한 용어의 보완과 사용치 않는 용어(폐어)를 삭제하고 일본식 용어도 우리말 용어로 개정하여 출간하였습니다.

- 가 격 : 5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3. 「장해판정기준」 - 사지및척추분야 - 개정판발간

장해판정을 하는 정형외과학회 회원 뿐만 아니라 장해판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과의 의사 선생님은 물론, 사회에서 배상 및 보상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과 법조계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의 회의와 워크샵에서의 토론을 통해 2005년 초판 이후 첫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가 격 : 회원 15,000원/ 비회원 3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4. 정형외과학 7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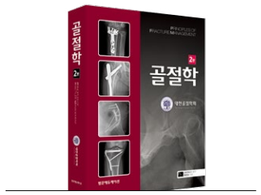
- 구 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 격 : 300,000원대

※ 정형외과학 7판 교과서 E-book 회원전용 모바일 서비스 이용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1대 집행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학회의 스마트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정형외과학 7판 교과서 E-book'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회원 전용 모바일 서비스로 대한정형외과학회 모바일 페이지(http://m.koa.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쉽게 교과서 내용을 확인 및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 정형외과학 교과서 E-book 서비스는 교과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회원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E-book 이용 시 로그인 정보는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정보와 동일합니다.

5. 골절학 교과서 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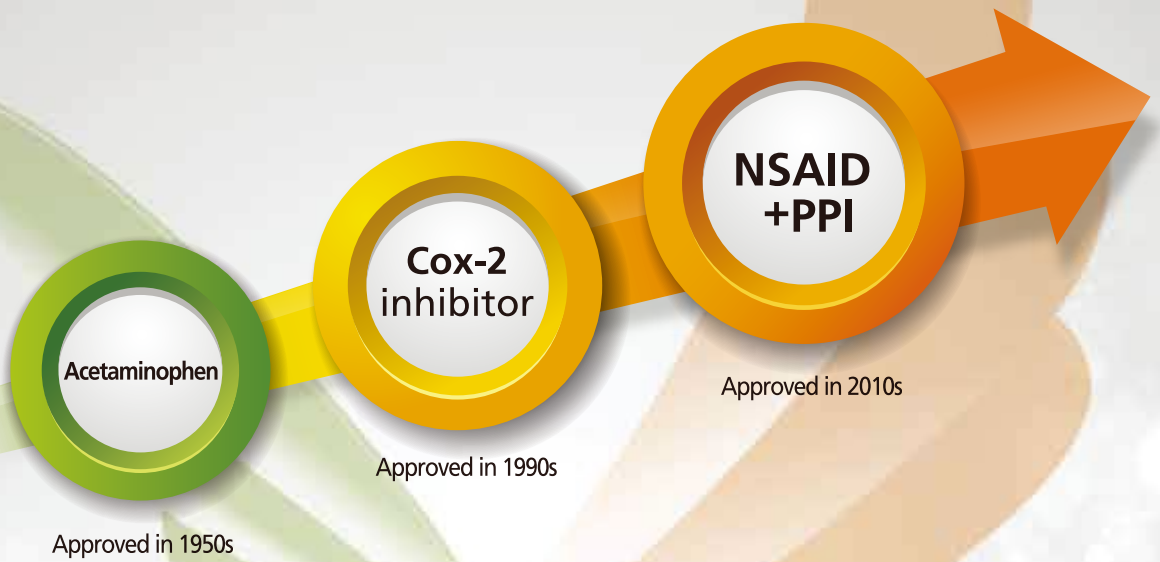


대한골절학회에서 골절학 개정판(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1판 출간 이후 발표된 많은 연구 업적들과 새로운 변화를 개정판에 담았으며,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증례와 사진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술방법에 대해서는 QR code를 통하여 수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가 격 : 190,000원
- 구 입 : 범문에듀케이션(전화 02-2652-5120, E-mail medicalplus@epublic.co.kr / 온라인 www.medicalplus.co.kr)

NSAID 사용 시 고려할 게 많으십니까?

Vimovo® 하나면 됩니다!†



NSAID의 Clinical practice 패러다임 변화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1]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2]

[3]

Canadian consensus guidelines on long-term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therapy and the need for gastroprotection: benefits versus risks[5]

BMC family practice [4] (based on NICE Guidelines)

비스테로이드소염제 관련 소화성궤양의 예방과 치료 가이드[6]

Guideline에서도 GI, CV risk가 우려되는 경우 **NSAID(Naproxen)+PPI**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령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연령의 제한 없이
CV risk가 있는 관절염 환자[4,5]	ACG[1], Canadian consensus guideline에서도 CV risk가 있는 관절염 환자에게 NSAID+PPI 권장
저용량 아스피린 병용†	LDA **병용과 상관없이** 나프록센 단독 대비 상부위장관 **부작용 감소**
기타 요양 급여 기준	NSAID로 인해 상부위장관 문제가 우려되는 관절염 환자에서 **기타 요양 급여 기준 제약 없이**

† Aliment Pharmacol Ther. 2010 Aug;32(3):401-13. Curr Med Res Opin. 2011 Jun;27(6):1243-53. Lancet. 2013 Aug 31;382(9894):769-79.

References 1. Am J Gastroenterol 2009; 104:728 – 738 2. Arthritis Care & Research Vol. 64, No. 4, April 2012, pp 465–474 3.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2008) 121, 464-474 4. Adebajo BMC Family Practice 2012, 13:23, http://www.biomedcentral.com/1471-2296/13/23 5. Aliment Pharmacol Ther 2009; 29, 481–496 6. 대한소화기학회지 2009;54:309-317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PPI= Proton pump inhibitor GI= gastrointestinal CV= cardiovascular LDA= Low dose aspirin

비모보정 500 /20 밀리그램 효능효과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프록센 등)와 관련한 위궤양 및/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척추염의 증상 치료 **용법용량** : 성인: 1일 2회, 1회 1정(나프록센 500mg/에스오메프라졸 20mg)씩 경구투여한다. 이 약은 쪼개거나 씹거나 부수지 말고 물과 함께 그대로 삼켜서 복용한다. 식전 최소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의 성분인 NSAID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2) 심혈관계 위험: 이 약에 포함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3) 위장관계 위험: 나프록센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의 출혈, 궤양 및 천공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나프록센 단독투여에 비하여 이 약이 위궤양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나, 궤양 및 그와 관련된 합병증은 여전히 발생된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세한 제품 정보는 제품문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스트라제네카 (02-21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TLAS ID 454,872,022 | Exp. 20190217

AstraZeneca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0 루터회관 17층 TEL: 02)2188-0800 FAX: 02) 2188-0852 www.astrazeneca.co.kr

LG화학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0로 70, LG사이언스파크 2차부지 E14동 TEL: 080) 023-5757 www.lgchem.com